

저격용 소총 담양서 유통



경찰, 미국산 16연발 레밍턴 등 37정 불법거래 4명 구속

국내 첫 적발...불법소지 36명 중 절반이 광주·전남

저격용으로 쓰이는 미국산 자동소총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담양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1일 미국산 22구경 16연발 레밍턴 자동소총 등을 불법 거래하고 소지한 김모(49·담양군)·손모(48·고흥군)·김모(32·)씨 등 전남출신 3명 등 4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총을 소지한 국모(35·담양군)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기 소지자들은 조직폭력배·건설노동자·회사원 등 다양하며, 이중 절반 가량은 광주·전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레밍턴 스피드 마스터 552' 저격용 22구경 자동소총 1정과 불법 제조된 22구경 소총 1정·무허가 업종과 공기총 37정·실탄 2천여 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 담양읍 모 장례식장에서 250만원을 받고 망원렌즈가 부착된 레밍턴 22구경 자동소총을 국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레밍턴 소총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민간인이 소지한 것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

▲레밍턴 스피드 마스터 552=22구경 저격용 라이플(자동소총)로, 16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다. 망원렌즈가 부착돼 200m 떨어진 거리에서도 눈·코·입 등 신체 각 부위를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 소음기를 장착했을 경우 총소리가 나지 않는다. 구형 5연발 레밍턴 소총의 경우 1968년 미국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암살에 사용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총의 출처를 확인 중이지만 김씨는 "지난 2004년 3월 숨진 고향 후배에게 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유통 경로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씨 등은 무허가 업종이나 공기총을 사들인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기번호를 칼 등으로 깎아내 없앴다. 또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뒤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고 밀렵용 총기로 개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는 관할 경찰



담양 등에서 첫 유통된 저격용 미국산 자동소총과 불법 개조된 업총. /연합뉴스

서장에게서 소지 허가를 받은 뒤 경찰서에 보관하다 수렵기간 등 사용기간에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광주와 담양·고흥·경기도

일대 사냥터 등지에 대한 잠복·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으며, 총기 밀매 조직 및 유통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스님이 불전함 훔치고 협박·폭행

나주 남평 모 사찰서

'부처님 오신 날' 불전함을 훔치고 선후배들을 동원해 절 주인을 협박한 스님이 경찰에 구속됐다.

나주시 남평읍에 C사찰을 세운 손모(여·40)씨는 지난해 초순 계약금 1천만원,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김모(여·46)씨가 절에 살면서 신도들을 상대로 점을 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평온했던 절은 그러나 "김씨의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스님 안모(42)씨가 나타나면서 뒤숭숭해졌다. 안씨는 김씨에게 돈을 요구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절 주인인 손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안씨는 "김씨와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나에게 승계해 달라" "절을 같이 운영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손씨가 거절하자 광주에서 선후배 7명을 불러 절 출입을 막은 후,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 달 24일 신도들이 시주한 2천500만원이 든 불전함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30여년 동안 전남·북 사찰을 떠돌아 다닌 점으로 미루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부인 병수발 80대 숨진 지 3일만에 발견

뇌출혈 부인은 구조

뇌출혈로 쓰러진 부인의 병 수발을 들던 80대 노인이 숨진 지 3일 만에 발견됐다. 거동을 전혀 못하는 부인도 남편이 갑자기 숨지자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맸다.

11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주공아파트 205동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김모(84)씨가 욕실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자원봉사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허리디스크를 앓던 김씨가 목욕을 하다 기력이 빠져 욕조 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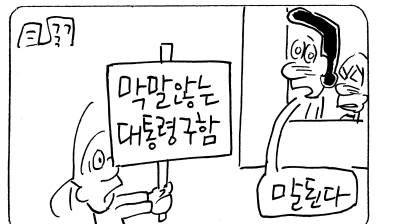
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부인(74)의 병 수발을 해왔으며, 일주일에 2~3차례 오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로부터 병원 이송·집안 청소·도시락 배달 등 도움을 받아왔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할머니도 발견 당시 기력이 빠진 상태였다"며 "자원봉사자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7233) 김장동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양:(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안병군 前 나산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부도난 나산의 자금 290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359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안병군 전 나산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 99.9%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나산종합건설을 직접 경영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했으나 "자신의 명의로 된 전 재산을 나산 등이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고 사후 변제를 통해 피해의 상당액을 회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초질서 지키기 10만인 서명 캠페인

11일 오전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 성공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참여 10만인 서명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송광운 북구청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상용 북구의회 의장(세 번째) 등이 서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해남군 공무원 수사 확대

해남지청, '인사청탁 뇌물' 박군수 부부 기소

박희현 해남군수의 인사청탁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군수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 수사뿐 아니라 직무유기 등 공직부패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1일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박희현(63) 해남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군수의 부인 최모(5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해남군청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모두 1억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올해 3월에도 보조급 사업자로부터 사업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방조와 뇌물공여·뇌물공여 의사표시 여부 조사, 혐의가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보조급 사업자들의 국고금 편취 등 구조적인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박 군수의 구속기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정화균 해남 부군수가 11일부터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검찰처분 불만' 국회서 인분 소란



○서울 영등포 경찰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뒤 1층 방호실에서 미리 준비한 인분을 바닥에 흘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58)씨를 불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에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 국회 의사국 경위과 소속 직원 10여 명에 의해 제지당한 1층 방호실로 옮겨지면서 자신의 가방에 숨겨 들이온 인분을 바닥에 흘린 혐의.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연루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만을 품고 국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

○경찰은 정씨가 인분을 국회로 들이온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단위:원)

내장일기준	할인금액	비고
5일전부터	1만원 할인	홈페이지 예약 잔여타임에 한함
3일전부터	2만원 할인	
1일전부터	3만원 할인	

● 홈페이지: <http://www.hpdynasty.co.kr>